

한국 아동정책의 지향

김선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한국아동복지학회 학회장

2022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사회취약계층 발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등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데이터 매칭,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국가의 정보관리는 사각지대 발굴과 같이 특정 집단의 욕구를 예측하고 지원하는 데 일부 기여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범주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범주화가 특정집단을 낙인화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집단의 속성과 개인의 상태가 불일치할 경우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많은 사례들에게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으로 인한 문제의 원인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며 가난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4년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가구의 경우 부모가 아동을 먼저 살해한 후 자살하는 끔찍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 6월에도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 중 일부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사각지대 아동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아동정책이 사각지대 예방 및 위기가동발굴에 적극적인인지, 그리고 충분한 지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포괄하는 국가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할 것과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으며²⁾, 국내의 학자들도 독립된 아동 분야 중장기 계획이 부재함을 지적해왔다³⁾⁴⁾⁵⁾⁶⁾.

1)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72781
(2022년 9월 1일자 보건복지부 2023년 예산 보도 관련 설명자료)

2) 황옥경 (2013). 아동정책현안 및 정책과제.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미숙·김혜련·김광혁·양심영·이주연·하태정 (20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이봉주·김경륜·황옥경 (2006). 한국의 중장기 아동정책 방안. 중장기 아동정책과 국가행동계획.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에 따라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2년 현재 우리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 추진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해를 지나고 있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계획된 과제가 많고 이에 대한 예산도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제외하면 예산 자체도 매우 작지만 그 나머지 예산으로 취약계층아동을 포함한 특수육구아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보장과 함께 장애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빈곤, 장애, 이주배경 등 특수육구아동에 대한 선별적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육구의 특성에 따라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분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인 GDP 대비 2.4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GDP대비 1.3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22). 실제 특수육구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제도나 서비스의 절대적인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아동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더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우리사회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시행하는 구체적 사업들이 실제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지, 그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슬로건인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게 할 것이다.

5) 정익중 (2009).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40(1), 297-322.

6) 허용훈 (2014).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23-126.

7) 김선숙, 조소연, 이태인, 황혜신, 최세나 (2020)(2021).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아동권리보장원